

생물종 다양성 보존활동

남양유업 천안공장은 매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우렁이 방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은 화학제초제 대신 물속의 풀을 먹어 치우는 우렁이의 습성을 이용해 논에 잡초를 없애는 생물학적 제초법으로 대표적인 친환경농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렁이농법은 생물종 다양성 증대 효과가 있으며, 우렁이농법을 사용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는 다양한 생태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렁이 방사식을 진행하는 천안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3년 6월 기준 360개 농가 259ha이며 지난해 생산된 732t의 쌀을 학교급식으로 납품해 851개 학교(어린이집 포함) 11만 5000여명의 학생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구 분	협력 기업 및 단체	적용내용	기대 효과
친환경쌀 남관작목반 우렁이 방사식 (2023)	천안시	친환경 쌀 생산농가에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 → 천안시 내 4개 읍면 159ha에 친환경농자재 인 우렁이종패 10t과 유박(비료) 160t 공급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벼는 1등급 기준 9만4000원(40kg)으로, 일반 벼보다 31% 이상 높은 수매가격에 판매돼 친환경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 생산된 친환경 쌀은 학교 급식으로 납품돼 어린이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 중